

시즌5
제7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2021학년도 시즈5 제7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18] 현대시 : (가) 박목월, 「회수」

* 작품 평가

제목인 '회수'는 고개를 돌린다는 뜻으로, 이것이 시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화자가 쫓던 '사슴'이 사라지지 않고 멀리서 고개를 화자 쪽으로 돌린 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슴'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 작품 분석

나의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은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는 것은 쥌 수 없었다는 뜻이다. 화자는 '모든 것'을 붙잡지 못한 채 놓쳐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다.

어린 날의

모래톱이며

넷물이며, 않는 밤의

출렁이는 검은 물결이며

첫사랑이며

쫓다가 놓쳐 버린 사슴

⇒ 화자가 놓쳐 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모래톱', '넷물'은 어린 시절에 뛰놀았던 아름다운 자연일 것이다. '않는 밤의 출렁이는 검은 물결'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정체불명의 신비한 감정들이라고 해 두자. 그리고 '첫사랑'도 있고, '사슴'도 있는데, 청록파 시인으로 불리는 박목월의 시에서 '사슴'은 흔히 '순수와 동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인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결부된 소재이다. 참고로 '청록'은 푸른 사슴이란 뜻이다.

⇒ 자연, 성장의 신비, 사랑, 이상적인 아름다움 등은 시인이 주로 다루었던 소재나 주제들이다. 이것들을 놓쳤다는 것은 시인이 그 가치들을 시로 만족스럽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뜻도 되겠다.

그것[→ 붙잡을 수 없었던 대상들]은

나의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 다시 한 번 위에서 열거한 대상들을 붙잡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부드럽게 흘러내렸다'는 것은 그것들이 단번에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차츰차츰 알게 모르게 잊혀져 갔다는 뜻이겠다.

하지만 그 흔적으로

달이 있다.

⇒ '그 흔적'은 '부드럽게 흘러내'린 흔적이겠다. 붙잡으려던 대상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흔적이 '달'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달'은 무엇일까?

⇒ 시로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어도, 미처 표현하지 못한 아름다움의 흔적들은 시인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완벽하게 시의 아름다움으로 붙잡고자 한 꿈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붙잡지 못한 대상들의 아름다운 느낌이 흔적으로 잔잔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거다. 이런 것을 시에서는 '서정'이라고 한다. 즉 '달'은 시인의 마음속을 아름답게 비추는 서정이다.

달빛에 비춰 보는 빈손[→ 이제 나이가 든 시인은 서정적인 마음으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자신의 빈 손을 비추어 본다.]

그리고

산마루에서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사슴이 있다.

⇒ 놓쳐 버린 줄 알았던 사슴이 저만치 떨어져서 도망가지 않고 나를 어서 오라는 듯 뒤돌아보고 있단다.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상을 향한 동경은 마음속에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라진 줄 알았던 꿈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음을 설레게 한다는 뜻이겠다.

좀생이별 아래서[→ '좀생이별'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성경에서는 우주의 운행을 관장하는 신의 권능을 증거하는 별이다. 또 다른 뜻은 보잘것없는 여러 별들이 모여 이루어진 성단이라는 뜻이다. 시인이 기독교도였던 점과 결부하면, 좀생이별은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삶을 비추어 주는 신의 섭리 정도가 되겠다.]

고개를 돌리고[→ 제목인 '회수'의 뜻이다 '고개를 돌리고'는 그 동경의 대상이 자신을 어서 오라는 듯 이끌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영원히.

⇒ '사슴'으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를 시인 자신의 영원한 소명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 동경의 대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성찰

[22~25] 사회 : 인정 투쟁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사회 철학 - 인정 투쟁

인정 투쟁, 전통적인 사회학, 분배 문제, 경제적 차별, 문화적 무시, 프레이저, 호네프, 인정 형식, 사랑, 권리 부여, 가치 평가, 친밀성 영역, 법 영역, 경제적 생산 영역

* 지문 분석

문단1 : 인정 투쟁

1)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 투쟁**을 벌이기도 한다.

⇒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맥락 짚기] 사회 현상을 ‘인정 투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인정 투쟁’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관점의 대립을 소개하려는 것 같다.

2) **전통적인 사회학**에서는 인정 투쟁에 의한 사회 갈등을 경제적 불평등의 뿌리인 **분배 문제**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맥락 짚기] ‘전통적인 사회학’이 ‘인정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 ‘전통적인 사회학’은 ‘인정 투쟁’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것을 ‘분배 문제’에 종속되는 문제 정도로 취급했다는 얘기다. 당연히 이들의 문제의식도 ‘분배 문제’에 있지, ‘인정 투쟁’에 있지 않았을 게다. 대략 이런 느낌을 잡고 가면 되겠다. “사회 갈등? 그거 어차피 ‘분배 문제’가 해결되면 알아서 끝날 문제지, ‘인정 투쟁’ 같은 게 왜 중요해?”

3)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갈등 양상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에 이러한 경향[→ ‘인정 투쟁’을 ‘분배 문제’에 종속된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성과 함께

⇒ ‘전통적인 사회학’의 관점에 대해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 있단다.

4) 인정 투쟁을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등장하였는데, **프레이저**와 **호네프**가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맥락 짚기] 프레이저와 호네프는 ‘전통적인 사회학’과는 대비되는 관점을 지닌 학자들이었다.

⇒ ‘분배 문제’보다 ‘인정 투쟁’을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등장했다. 즉 이들은 “사회 갈등? 그거 ‘인정 투쟁’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거야!”라고 말하는 학자들일 게다.

5) 다만 이들은 여성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A.경제적 차별**이나 **B.문화적 무시**의 기원과 그 해결책에 관련하여 의견을 달리하였다.

[맥락 짚기] 4)에서는 ‘인정 투쟁’에 대한 ‘프레이저’와 ‘호네프’ 두 관점의 공통점을, 5)에서는 두 관점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문단2 : 프레이저

1) **프레이저**는 여성 노동자가 A.여성 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차별[→ 분배 문제, 경제적 차별]과 B.남성 중심주의에 의한 차별[→ 문화적 무시] 등 이중적인 불평등을 겪는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프레이저’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이중적인 불평등’으로 이해했다. 한마디로 문단1-5)에서 언급된 A와 B의 기원을 구분하여, 이 둘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겠다.

⇒ A의 경우 ‘전통적인 사회학’에서 다룬 ‘분배 문제’와 딱히 다를 바가 없다. 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래도 더 읽어 봐야겠다.

2) A.여성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차별은 B.문화적 차별과 무관한 것으로, ...

⇒ ‘이중적인 불평등’이라는 표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A가 B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B의 영향으로 더 심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3) A.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에게 행해지는 착취, 실업, 빈곤과 같이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불의의 일환**이다.

⇒ ‘프레이저’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필연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착취, 실업, 빈곤, 그리고 A와 같은 ‘사회 경제적 불의’가 발생한다.

[맥락 짚기] 이는 A가 B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4) 또한 B.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차별은 [자본주의에서 기인한] A.경제적 차별과 무관한 것으로, ...

⇒ 2)와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불평등’이라는 표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5) 자본주의에 훨씬 앞서 존재했던 B.가부장적 문화[→ 남성 중심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문화적 지배 집단[→ 남성]이 그 반대 집단 혹은 성적, 인종적 소수자[→ 여성]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B.문화적 불의의 일환이다.

[맥락 짚기] B는 쉽게 말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무시’]이겠다. A가 ‘분배 문제’라면 B는 ‘인정 투쟁’과 결부된 문제인 셈이다. 한마디로 ‘프레이저’는 ‘인정 투쟁’을 ‘분배 문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인정 투쟁을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한 게다.

⇒ ‘프레이저’에 따르면 B는 ‘가부장적 문화’의 결과이며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는 무관하다. 문단1-5)의 A가 여성 노동자라서 겪는 ‘분배 문제’라면, B는 여성이라서 겪는 ‘인정 투쟁’과 결부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6) 프레이저에 따르면 이렇게 두 차별[→ A, B]은 뿌리부터 다르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 따라서 A와 B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A를 해결한다고 B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B를 해결한다고 A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각각 따로 해결할 문제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프레이저의 주장>

- 1) 자본주의 경제 구조 → A.경제적 차별 (분배 문제)
 - 2) 가부장적 문화 → B.문화적 무시 (인정 투쟁)
- ∴ A ≠ B

7) 다만 프레이저의 논리에 따를 때에는 A.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이윤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 3)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다.

8) 왜 생산성이 높은 여성조차 남성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는지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주목] ‘A ≠ B’가 성립한다는 ‘프레이저’의 주장의 한계가 되겠다.

⇒ ‘프레이저’가 옳다면 설령 B.문화적 무시가 존재하더라도, A.‘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여성’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더 많은 분배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문단3 : 호네프

1) **호네프**는 A.분배가 B.인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인정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곧 그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맥락 짚기] ‘A ≠ B’라고 주장한 ‘프레이저’와 달리 ‘호네프’는 A가 B의 한 유형이라고[→ A ⊂ B] 주장했다. ‘호네프’는 오히려 ‘분배 문제’를 ‘인정’에 종속시켜서 이해한 셈이다. 지금까지 등장한 세 관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겠다.

전통적인 사회학	프레이저	호네프트
B는 A의 부차적인 문제	A와 B는 별개의 문제	A는 B의 한 유형

- 2) 그는 A.남성 노동에 비해 여성 노동이 분배에 있어 더 낮은 대우 [→ 경제적 차별]를 받는 것은 A.자본주의적 분배의 요인뿐 아니라 B.가부장적 문화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주목] 중요하다. ‘호네프트’에게 ‘분배 문제’는 A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는 A 역시 B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차별’은 A와 B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 3) 그리고 이를 근대 자본주의적 인정 질서를 구성하는 ‘사랑’, ‘권리 부여’, ‘가치 평가’의 세 가지 **인정 형식**을 통해 설명한다.

⇒ ‘호네프트’가 A와 B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개념들이다. 각각의 의미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 4) **‘사랑’**은 부부 사이, 그리고 가족 간의 인정 형식으로 가정이라는 **친밀성 영역**을 구성하고, ……

⇒ 쉽다. 예를 들어 ‘친밀성 영역’을 이루는 부부는 서로 ‘사랑’이라는 형식으로 서로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다.

- 5) …… **‘권리 부여’**는 시민들 사이의 인정 형식으로 소유권과 같은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에 관한 **법 영역**을 구성한다.

⇒ ‘법 영역’은 ‘친밀성 영역’에 비해 그 범주가 좀 더 넓어졌다. 시민들 간에는 서로를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 영역’이 구성될 수 있다.

- 6) 마지막으로 **‘가치 평가’**는 개인의 개성이나 자질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개인을 평가하는 인정 형식으로 **경제적 생산 영역**을 구성한다.

⇒ 역시 어렵지 않다. ‘법 영역’이 ‘시민들 간의 인정 형식’이었다면 ‘가치 평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에 대한 인정 형식’이겠다. 다만 ‘가치 평가’의 정의보다도 ……

- 7) 호네프트에 따르면 A.분배는 다른 인정 형식들[→ ‘사랑’, ‘권리 부여’]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가치 평가’에 따른 결과이다.

[맥락 짚기] …… ‘분배’가 그 결과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1)에서 언급된 A가 B의 한 유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던 게다. ‘호네프트’가 설명한 세 가지 ‘인정 형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겠다.

B.인정 형식	사랑	권리 부여	가치 평가 [→ A.분배]
영역	친밀성 영역	법 영역	경제적 생산 영역
범주	가족 간의 인정 형식	시민들 간의 인정 형식	공동체 안의 개인에 대한 인정 형식

∴ A ⊂ B

[주목] 여기서 ‘분배’는 ‘가치 평가’에 따른 결과이지만, 다른 B.인정 형식들의 영향도 받는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겠다.

- 8) 그래서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은 A.‘가치 평가’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한 분배에 더해, B.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권리 부여’가 미흡하여 여성에게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분배의 결과일 수 있다.

⇒ 2)에 대한 상술이다. ‘호네프트’에 따르면 ‘인정 형식’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여성 노동에 대한 경제적 차별 역시 B를 이루는 A와, B를 이루는 나머지를[→ ‘사랑’, ‘권리 부여’]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얘기다.

[Rew] 이와 달리 ‘프레이저’는 문단2-2)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경

제적 차별을 A에 의한 것으로만 설명했었다.

- 9) 이는 분배와 인정을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A ≠ B] 프레이저 식의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

⇒ 8)까지 잘 따라왔다면 당연한 결론이다.

문단4 : 호네프트의 해결책

- 1) 호네프트에 따르면 A.자본주의적 분배의 원칙 그 자체에는 본래 여성 노동을 특별히 구분하여 차별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생산에 대한 업적을 평가할 때에는 생산성에 따른 개인차를 구별할 필요만 있을 뿐 여성 전체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Rew] 문단3-6)에서 설명했듯이 ‘가치 평가’는 개인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그 개인을 평가하는 인정 형식일 뿐이다. 그 개인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

- 2) 그래서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 ‘권리 부여’의 미흡함]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경우에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도[→ 능력에 따른 정당한 분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 ……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1)의 ‘자본주의적 분배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호네프트’의 설명인 게다.

[Rew] 문단2-8)에서 제기된 ‘생산성이 높은 여성’의 사례 역시 같은 논리로 설명 가능하다. ‘생산성이 높은 여성’임에도 공정한 분배를 받지 못한 것[→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적절한 제도가 ‘법 영역’ 안에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일 게다.

- 3) 호네프트에 따르면 인정 투쟁을 통해 사랑, 평등한 권리,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라는 규범들이 인정 형식의 적용 과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실현될 때에 ……

⇒ 결국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은 ‘권리 부여’의 적용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라는 규범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결과겠다.

- 4) …… 여성, 이주자 등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 뭐 무난한 좋은 마무리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화학 - 이성질체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 카이랄성, 편광판, 평면 편광, 광학 활성, L형 이성질체, D형 이성질체, 라세미체

기술 - 화학 공학 - 이성질체 분리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카이랄 고정상, 액체 이동상, 카이랄 선택자, 입체 장애, 카이랄성 인지의 교호성

* (가)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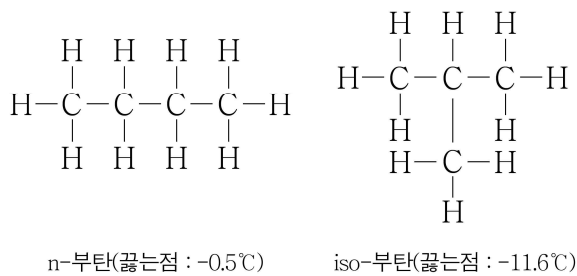
문단1 : 이성질체와 카이랄성

1) 분자식이 같아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함에도, 원자 간 결합 방식이나 원자들의 입체적 배열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일부가 서로 다른 분자를 **이성질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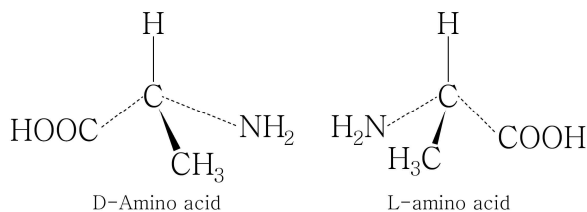
⇒ ‘이성질체’의 정의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 일종의 분자 그룹인 게다. 분자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두 개의 쌍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묶음일 수도 있다.

- 공통점 : 분자식 ⇨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
- 차이점 : 원자 간 결합 방식, 원자들의 입체적 배열 방식 ⇨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일부

⇒ 예컨대 다음은 ‘원자 간 결합 방식’이 다른 이성질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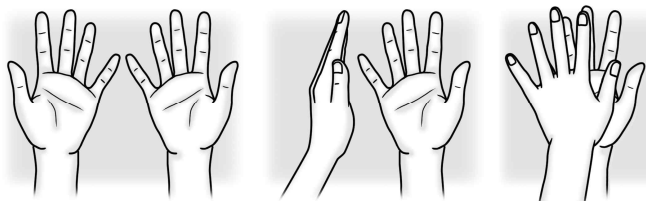


⇒ 예컨대 다음은 ‘원자들의 입체적 배열 방식’이 다른 이성질체다.



2) 그중에서[→ 이성질체 중에서] 특히 카이랄성을 지닌 것을 **거울상 이성질체**라 부른다. **카이랄성**은 오른손과 그것을 거울에 비쳤을 때 나타나는 왼손의 상처럼,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 모양이어서 방향을 아무리 바꾸어도 서로 겹쳐지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 그림으로 떠올려 보자. 이렇게 닮았는데,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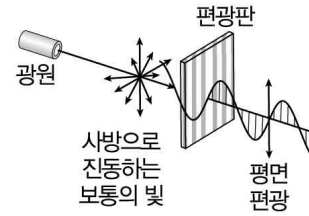
3) 카이랄성을 지닌 분자[→ ‘거울상 이성질체’를 이루는 분자쌍 중 한 분자]는 그 중심을 지나는 가상의 면으로 해당 분자를 양분하려 할 때,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

⇒ 좌우 대칭인 물체는 좌와 우를 바꾸거나 거울에 비춰도 같은 물체다. 즉 ‘겹쳐진다’. 좌우 대칭이 아닌 물체만이 겹쳐지지 않는 거울상을 지닐 수 있는 게다.

문단2 : 거울상 이성질체의 광학 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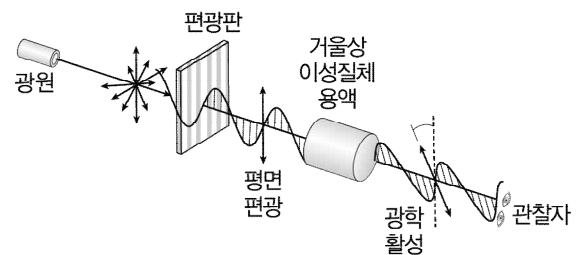
1) 사방으로 진동하는 보통의 빛을 **편광판**[→ 빛의 특정 방향 성분만을 통과시키고 다른 성분은 흡수하거나 반사시키는 광학 소자]에 통과시키면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평면 편광’**을 얻을 수 있다.

⇒ 그림을 떠올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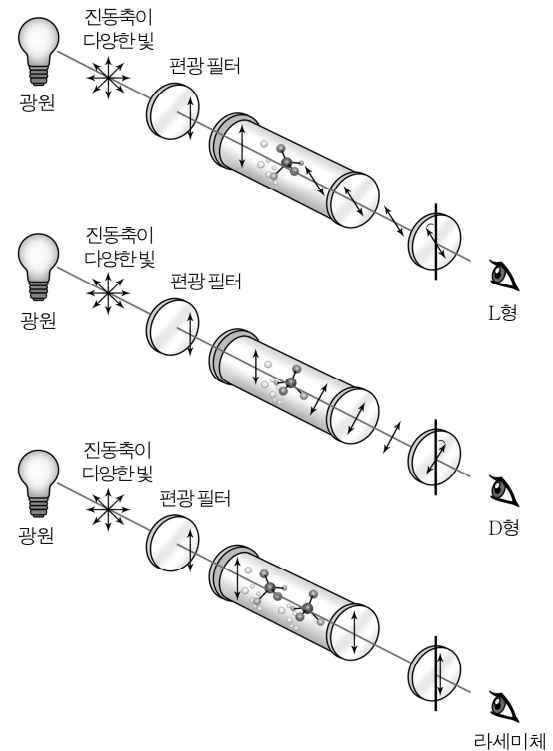
2) 거울상 이성질체가 녹아 있는 용액 시료에 평면 편광을 투과시키면 그 진동 방향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일정한 각도만큼 기울어지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처럼 평면 편광의 진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성질을 **‘광학 활성’**이라 한다.

⇒ 결국 ‘거울상 이성질체 용액’은 ‘광학 활성’을 지닌다.



3) 투과되어 나오는 광선을 관찰자가 앞에서 보았을 때 평면 편광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는 것을 L형 이성질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는 것을 D형 이성질체**라 부른다. 기울어지는 방향은 각 거울상 이성질체의 입체 구조에 의해 달라진다. L형 이성질체와 D형 이성질체가 동일한 양으로 섞여 있는 혼합물인 **라세미체**의 경우, 광학 활성에 의한 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 이렇게 된다.



문단3 : 약물에서 D형 이성질체의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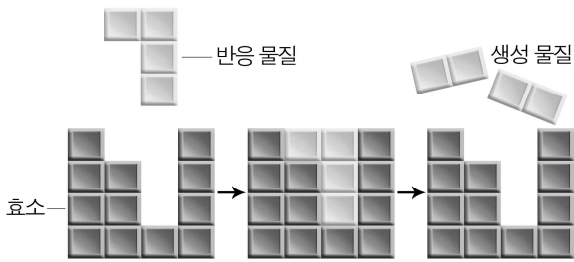
1) 인체는 거울상 이성질체 중 L형 이성질체와만 적절하게 반응하는 카이랄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있는 효소의 수용체가 L형 이성질체와만 결합하는 것이다.

⇒ 물질들이 이성질체와 반응하는 방식은 다양한가 보다. 그중 인체의 효소는 L형과만 적절하게 반응한다.

2) 반응 물질[→ 화학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해서 생성 물질을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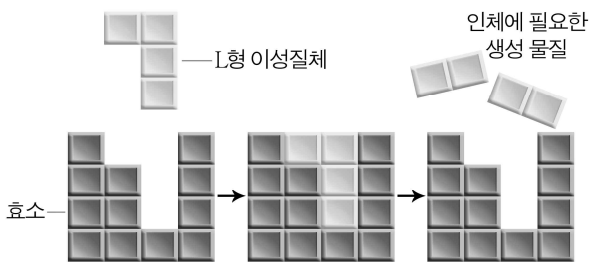
내는 물질. 'A+B → C+D'의 반응에서 A와 B가 반응 물질이다.]에 효소[→ 생체의 물질대사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가 결합했다가 다시 분리되는 촉매 작용을 거쳐야 반응 물질이 인체에 필요한 생성 물질[→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 'A+B → C+D'의 반응에서 C와 D가 생성 물질이다.]로 변하는데, ...
⇒ 이런 얘기가 된다.

반응 물질 + 촉매(효소) ⇨ 생성 물질 + 촉매(효소)



3) 반응 물질로 투입된 L형 이성질체는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 인체에 필요한 생성 물질로 변한다.

L형 이성질체 + 효소 ⇨ 인체에 필요한 생성 물질 + 효소



4) 그런데 D형 이성질체는 그 입체 구조가 달라서 효소의 수용체와 제대로 결합하지 못한다.

⇒ D형 이성질체는 효소와 결합 자체가 안 돼서 문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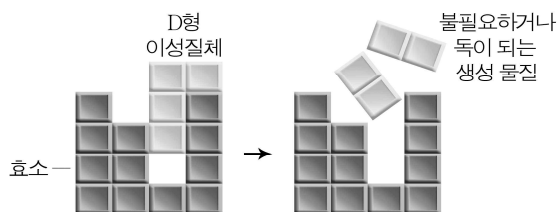
D형 이성질체 + 효소 ⇨ 결합 X



5) 효소와 불완전하게나마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어떤 생성 물질이 되더라도 그 생성 물질은 체내에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독성을 지닌다.

⇒ 결합이 돼도 더 문제다.

D형 이성질체 + 효소 ⇨ 불필요하거나 독이 되는 생성 물질 + 효소



[Rew] 1)에서, 인체가 L형 이성질체와만 '적절하게 반응'한다고 했던 것은 이런 의미에서였던 게다.

6) 거울상 이성질체로 약물을 합성하면 대개 L형 이성질체와 D형 이성질체가 반반씩 섞인 것[→ 라세미체]이 만들어지므로, D형 이성질체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약물 생성 시 필요한 이성질체[→ L형 이성질체]만을 분리해 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맥락 짚기] 이성질체로 이루어진 약물 얘기로 화제가 옮겨갔다.

[주목] D형 이성질체가 인체에 독성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L형 이성질체만을 분리해 내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7) 분리 후에는 평면 편광을 쏘아 제대로 분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ew] 문단2-3)을 떠올려야 한다. 평면 편광을 쏘아 보면 약물이 어떤 이성질체로 구성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게다.

* (나)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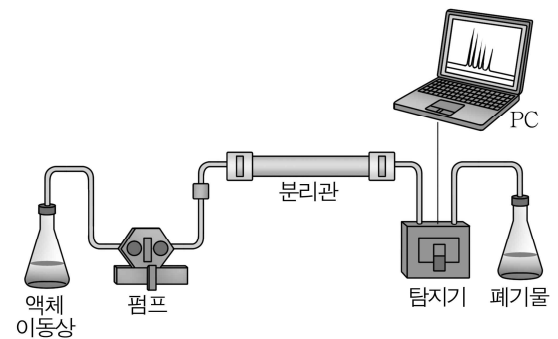
문단1 : HPLC의 기본 원리

1) 라세미체로부터 L형 이성질체나 D형 이성질체를 분리해 내기 위한 기술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가 있다.

[맥락 짚기] (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이 기술의 핵심 과제는 L형과 D형의 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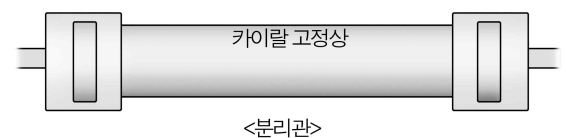
2) HPLC에서 사용하는 대롱 모양의 관 내벽에는 막 형태로 특정 종류의 카이탈 고정상이 접착되어 있다. 카이탈 고정상은 카이탈성을 지닌 미세한 입자이다.

⇒ 이런 정도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다.



3) HPLC는 분리 대상인 혼합물[→ 라세미체]이 녹아 있는 액체 이동상을 펌프를 이용하여 관을 따라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 대략 상상할 수 있다. '액체 이동상'이 '분리관'을 지나는 동안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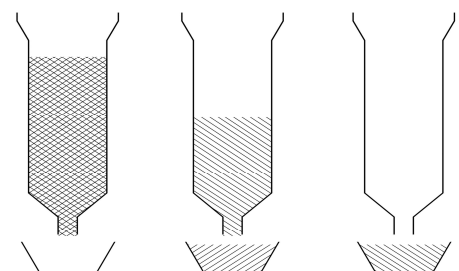


4) 그러면 혼합물을 구성하는 분자[→ 액체 이동상 안의 카이탈성 입자들, 즉 L형과 D형]들이 이동하면서 카이탈 고정상[→ 역시 카이탈성을 지닌 입자들]과 상호 작용하는데, 상호 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분자[→ 액체 이동상 안의 카이탈성 입자들, 즉 L형과 D형]의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

⇒ L형과 D형은 분리관의 내벽에 붙어 있는 카이탈 고정상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고, 그 차이에 따라 '이동 속도'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5) 그리고 이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 분자들은 종류별로 순서대로 관을 빠져나온다. 원하는 이성질체가 나오는 시점에 해당 분자들만을 추출하면 이를 제외한 혼합물 용액만 남는다.

⇒ '이동 속도'가 다르다면 분리관을 이동하는 동안 L형과 D형은 점점 멀어질 게다.



문단2 : 입체 장애의 크기에 따른 이동 속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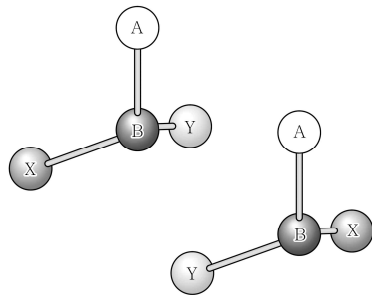
1) L형과 D형을 잘 분리하려면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카이랄 고정상을 이루는 분자인 카이랄 선택자를 적절한 것으로 택해야 한다.

⇒ 분리하고자 하는 이성질체에 맞게 ‘카이랄 선택자’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2)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하여 분자 구조가 유사하지만 서로에게 거울상인 L형과 D형은 카이랄 선택자와 각각 분자 내의 세 지점에서 상호 작용한다.

⇒ 카이랄성을 지닌 분자들은 세 지점에서 상호 작용한다.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로 알아.

[참조] 왜 꼭 세 지점이라고 따지고 싶어질 게다. 모든 거울상 이성질체의 기본 모양이 아래 그림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각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달라도, 모든 거울상 이성질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 A, B는 이성질체끼리 동일한 부분이고, X, Y는 좌우가 바뀌는 부분이다. 모든 거울상 이성질체의 기본 모양이 이러하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작용도 세 지점(A, B, X 혹은 Y)에서 일어나게 되는 게다.



3) 그중 두 지점[→ 2)의 그림에서 A 지점과 B 지점]은 수소 결합이나 정전기적 상호 작용 등으로 인해 원자 간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곳으로, L형 혹은 D형의 같은 지점에 있는 동일 종류의 원자와 카이랄 선택자의 특정 원자 간에 [상호 작용이] 형성되는 것이어서 [두 지점에서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가 동일하다.

⇒ A 지점이나 B 지점은 카이랄 선택자와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A 지점이나 B 지점은 L형과 D형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카이랄 선택자와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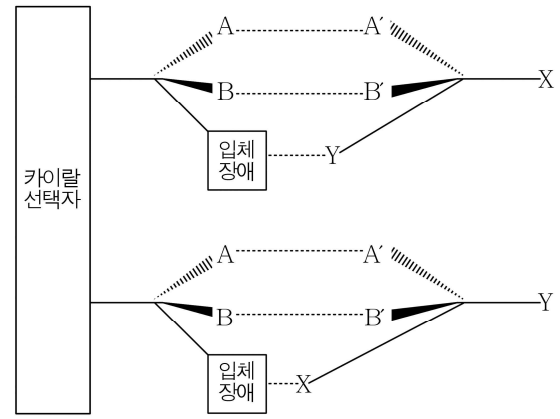
A 지점에서 L형과 카이랄 선택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
 $\parallel$
 A 지점에서 D형과 카이랄 선택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

 B 지점에서 L형과 카이랄 선택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
 $\parallel$
 B 지점에서 D형과 카이랄 선택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

4) 나머지 한 지점[→ 2)의 그림에서 X 혹은 Y 지점]에서는 입체 구조에 의해 밀어내는 힘인 척력, 즉 입체 장애가 작용한다. 카이랄 선택자와 L형, 카이랄 선택자와 D형 간에 나타나는 입체 장애는 그 차이[→ 작용하는 척력의 크기 차이]가 크다. 거울상의 구조로 인해 L형에서 입체 장애가 나타나는 지점은 D형에서 반대편에 놓이기 때문이다.

⇒ X 혹은 Y 지점은 카이랄 선택자와의 사이에 척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X 혹은 Y 지점은 L형과 D형이 정반대다. 따라서 카이랄 선택자와의 사이에 작용하는 척력의 크기도 다르다.

X 혹은 Y 지점에서 L형과 카이랄 선택자 사이에 작용하는 척력의 크기
 $\neq$
 X 혹은 Y 지점에서 D형과 카이랄 선택자 사이에 작용하는 척력의 크기



5) L형과 D형은 인력이 작용하는 두 지점[→ A 지점과 B 지점]을 포함하는 면이 카이랄 고정상이 있는 내벽과 평행하게 마주하는 상태로 이동하는데, 그 면[→ A 지점과 B 지점을 포함하는 면]에서의 [X 혹은 Y 지점에서의] 입체 장애가 큰 것일수록[→ 척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이성질체일수록] 카이랄 고정상에 강하게 이끌리지 않아서 더 빠르게 이동한다.

⇒ 결국 ‘이동 속도’는 X 혹은 Y 지점에서 작용하는 ‘척력의 크기’가 결정하는 셈이다.

척력↑ ⇨ 고정상에 끌리는 힘↓ ⇨ 이동 속도↑
 척력↓ ⇨ 고정상에 끌리는 힘↑ ⇨ 이동 속도↓

문단3 : 카이랄성 인지의 교호성

1) 한편 카이랄 선택자로 물질 A의 L형을 사용하여 물질 B의 L형과 D형을 잘 분리했다고 하자.

[문맥 짚기] 가정적 사례다.

2) 그럴 경우에 B의 L형이나 D형을 카이랄 선택자로 사용하면 A의 L형과 D형을 분리해 낸다.

⇒ 정리하면 이렇다.

카이랄 선택자	분리 대상
물질 A의 L형	물질 B의 L형과 D형의 라세미체

이 분리 작업이 성공적이라면.....

다음의 분리 작업도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

카이랄 선택자	분리 대상
물질 B의 L형	물질 A의 L형과 D형의 라세미체
물질 B의 D형	물질 A의 L형과 D형의 라세미체

하나 빠졌다. 남은 한 가지 조합도 당연히 가능할 게다.

카이랄 선택자	분리 대상
물질 A의 D형	물질 B의 L형과 D형의 라세미체

3) 이를 카이랄성 인지(認知)의 교호성이라 한다.

⇒ 1), 2)의 가정적 사례로 보아, ‘카이랄성 인지의 교호성(= 서로 어긋나게 맞춰지는 성질)’이란 ‘상대 물질의 카이랄성을 역할 바꿈을 하면서 인지할 수 있는 특성’ 정도의 뜻이 된다.

⇒ 결국,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장치에서 ‘카이랄 고정상’과 ‘액체 이동상의 이성질체’는 ‘카이랄성 인지의 교호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지녀야 한다.

4) 그래서 A로[→ 카이랄 선택자로 삼아] B의 라세미체를 분리한 경험 이 있다면, A의 라세미체를 분리하려 할 때 카이랄 선택자를 정하기 쉽다. A와 B의 이성질체들 간에는 분리에 필요한 정도로 세 지점에서 상호 작용[→ 인력과 척력의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당연하다. B의 L형이나 D형 중 하나를 카이랄 선택자로 정하면 된다.

[32~36] 회곡 : (나) 김우진, 「산돼지」

* 수록 지문 평가

대부분 신파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1920년대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최초로 표현주의 형식을 시도해, 인간 내면의 갈등과 의식 세계를 파고든 근대적 성격의 작품이다. 1894년의 동학 혁명과 1920년대 일제 강점기인 배경 사이의 연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읽자. 표현주의 연극이라는 특징 때문에 문학 교과서에 늘 언급되는 작품이므로, 표현주의 연극으로서의 면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자.

* 수록 지문 분석

들어가기 전

1) 산돼지와 집돼지

작중에서 주인공 원봉은 남들로부터 산돼지 취급을 받는데, 스스로도 자신을 산돼지라 하고 친구인 차혁을 가리켜 집돼지라 부르는 등 이러한 취급을 받아들인다. 산돼지는 주인공의 저돌적 성격, 기존의 인습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을 상징한다. 이와 달리 집돼지는 안정되고 평온하며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상징한다.

원봉은 산돼지의 성향을 지니고 태어났으나, 그의 삶을 둘러싼 환경 [→ 집안 환경, 시대적 환경 등]은 산돼지의 자유분방함만을 추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서 작가 김우진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원봉의 고뇌와 갈등이 발생한다.

2) 극 중 동학의 의미

주인공 원봉의 친아버지, 그리고 양아버지인 최 주사는 동학과 관련되어 죽고, 원봉의 친어머니 또한 동학군을 진압하려는 관군의 폭압으로 인해 병을 얻은 채 원봉을 낳고 곧 죽는다.

이러한 극 중 상황은 주인공 원봉의 고뇌와 긴밀히 연관을 맺고 있다. 동학으로 인해 원봉은 부모를 잃었고, 또 동학은 외세를 배격하는 운동이었는데 원봉은 신문물을 배운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원봉에게 동학은 식민지 지식인이 깊어져야 할 개인적이자 집단적인 트라우마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런 면에서 신문물 또한 낯은 인습을 타파할 수 있는 방편이면서, 식민지 조선을 옥죄는 외세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원봉의 고뇌와 갈등은 가족사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며 시대 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3) 극 중에서 원봉의 몽환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부각하기 위해 표현주의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형식이 잘 드러난 것이 제2막이다. 제2막에서 원봉은 몽환에 시달리는데, 이 몽환은 베일에 가려 있는 진실을 암시해 주고, 혼란스러운 원봉의 정신 상태를 엿볼 수 있도록 한다. EBS 지문에 제시된 부분이 이 제2막의 일부분으로서, 과거 사연을 드러내는 몽환에 이어지는, 현재 시점의 몽환 장면이다.

[앞부분 줄거리] 신경 쇠약 증세로 몽환에 시달리는 원봉은 동생 영순의 간호를 받는다.

원봉 : (혼자 누워 있다. 긴 동안의 정밀(靜謐, 고요하고 편안함). 줄지에 [→ 갑자기]) 영순아! 영순아! [→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던 원봉이 다시 무슨 생각인가가 떠올랐다.]

영순 : (쫓아 들어오며)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원봉 : (얼굴을 골방 쪽으로 돌리며) 나흐다질 노래를 들려 다우. 베이스로는 고만두고 테너로만. [→ 원봉은 앞부분에서도 '나흐다질 죄인 노래'를 불러달라고 영순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노래가 이어 가는 동안 원봉이는 잠들고 무대는 어두워진다. 그리고 몽롱한 달빛 같은 창백색이 나타난다. 그러나 다만 여름철 그믐달 밤의 하늘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노래는 다시 누구의 소리인지 베이스와 합창이 되어 가지고 되풀이해 나가는 동안 무대에는 무한한 공간만 채워 있는 것 같다.

⇒ 원봉이 잠에 빠져 들었다. 이후 원봉의 몽환이 시작된다.

몇 번 노래가 되풀이해 가다가 제1절이 끝나기 전부터 창백색이 좀 밝아 온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병실 대신에 동한(冬寒, 겨울철의 추위) 중의 별판이 나타난다. 완만한 야산이 나지막해져 온 곳 중복(中腹, 산의 중턱)에 무대가 놓인 셈이다. 왼편으로 숲. 잡목. 오른편으로 언덕. 여기저기 석총(石塚, 돌무덤). 회색 겨울 하늘이 낮게 걸려 있어서 전경을 금시라도 와 누를 것 같다. 지상과 언덕 위에는 약간 흰 눈이 덮여 있고 시시로 회오리바람과 싸라기눈.

이하의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갑자기 동학당 진군 행렬의 팬터마임이 지나간다. 오만 년 수운대의(受運大義, 시대의 변화를 좇아 대의를 따름) 글자를 쓴 오색의 기치를 선두로 도중(道衆, 길을 가는 무리)의 어깨에는 '궁을(弓乙, 동학에서, 천신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상)', 등에 '동심의맹(同心義盟, 마음을 함께하는 의로운 맹세)'이라 박은 삼삼오오의 일대(一隊) [→ 동학 농민군의 행렬임을 나타내는 표지들이다.], 환희와 서계(誓戒, 맹세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함)와 격려와 혹은 혼란을 표시하는 팬터마임. 천천히 그러나 무거운 수천 리 걸어온 피로된 보조(步調) [→ 동학 농민군이 품었던 마음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라는 연출상의 요구였다.]로 지나간다. 무대 한참 동안 공허.

병정 : (산발한 원봉이네 [→ 원봉의 친모]의 손목을 끌어 잡고 들어온다.) 이년 썩썩 걸어라! 너하고 같이 가다가는 얼어 죽겠다 [→ 원봉이네가 제대로 걷기 힘들 만큼 지치고 쇠약해져 있음을 보여 준다].

원봉이네 : (비틀비틀하며) 제발 살려 주시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더 못 나가겠습니다. (목멘 그나마 목원 소리로) 제발 적선 좀 해 주시오. [→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었다.] 저는 동학 역적놈을 남편으로 둔 죄로 이 자리에서 참형을 당해도 원통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배 속에 든 어린 아기를 위해서 살려 주시오. [→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나 아이만은 살려 주세요.'] 이 배 속 애기가 불쌍하지 않아요? [→ 배 속에 든 아기가 바로 원봉이다.]

병정 : (따귀를 붙이며) 웬 잔소리야 잔소리! 그따위 소리는 관찰사님 앞에 가서 네 멋대로 지껄이라니까 [→ 원봉이네는 관군에 의해 체포되어 관찰사가 있는 감영으로 끌려가는 중인 거다.] 못 들었니! 썩 걸어! 걷지 않겠니?

원봉이네 : (두 손으로 합장하며) 이 애기를 위해, 이 배 속에 든 어린 애기를 위해 제발 살려 주시오.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정 : 예잇, 귀찮어! 그러니까 누가 네 새끼를 찢러 죽인단디? 관가로 가기만 가잔 말이야.

⇒ 과거 [→ 동학 농민 운동]의 사건으로 장면이 이동한 상태다. 원봉을 임신한 원봉이네가 관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장면이다. 시간의 역전을 통한 과거 장면 혹은 원봉의 몽환 장면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겠다.

(중략)

원봉이네 : (악이 나서 달려들며) 이 개 같은 자식!

병정 : (발길로 차 내붙이며) 이 산돼지 같은 년! [→ 원봉이네의 격렬한 저항이 그렇다는 말일 텐데, 극에서 원봉이의 성격과 별명이 산돼지인 것과 조응한다.] (원봉이네, 소리를 지르며 자빠져서 꼼짝

못한다. 들여다보고) 흥, 원 냥이 날아갔구나![-> 원봉이네를 산 채로 관아에 끌고 가면 현상금으로 원 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원봉이네가 죽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까 운걸! 돈 원 냥에다 밋지 않은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으며) 이 까짓 것 한번 죽은 것 무엇에다가 쓰나! (설렁설렁 걸어 나가며) 그래도 죽긴 잘 죽었다. 제가 살면 무엇을 해. 산돼지 같은 역적 놈의 새끼[-> 꿈 밖의 원봉이와 조응하는 대사. 이는 어디까지나 원봉이의 몽환 속에 나오는 사건이므로, 원봉이의 자괴감에 찬 내면이 이런 식으로 투영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나 내지 르지! 주둥이가 이렇게 생기고 낮바닥이 이렇게 된! 하하하하! (나간다.)

무대 다시 어두워졌다가 밝아 온다. 여전한 장면. 눈과 바람은 개고 명랑한 달빛만. 원봉이네 거꾸러져 있던 그 자리에 그 자세대로 원봉이가 드러누워 있다. 신음.

⇒ 이후에 원봉이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몽환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까 이는 ‘몽환 1’에서 ‘몽환 2’로 넘어가는 극적 장치로 볼 수 있다. 하나의 환상이 다른 환상으로 교체되는 셈인데, 두 환상이 내면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표현주의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다.

* 참고 자료

동학과 일제 강점기 지식인

이 작품의 갈등 중 중요한 갈래의 하나는 동학당이었던 아버지의 이상을 잊지 못하는 1920년대 청년 지식인인 원봉의 무력감에서 비롯한다. 극 속에서 원봉은 사회와 민족을 위한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갇힌 산돼지’처럼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걸도는 삶을 살면서 독설을 늘어놓을 뿐이다. 이는 1919년 3·1 운동이 비극적으로 좌절된 이후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느낀 일반적인 심정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26년에 이 작품을 발표한 지 얼마 후에 극작가 김우진이 자살한 사건을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지식인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좌절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표현주의 연극의 특징

표현주의 연극은 사실주의 연극과 대척점에 서 있다. 사실주의 연극이 현실 사건을 무대 위에 재현해 보여 주는 것을 지향한다면, 표현주의 연극은 현실 사건에서 ①개인이 느낀 내면의 정서적 반응을 ②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문에서 원봉이 잠든 뒤, 현실 세계의 사건 진행을 무대에 올리지 않고 원봉의 몽환을 보여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①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몽환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원봉의 주관적 정서에 따라 현실 사건 속의 동일 인물들과 다른 캐릭터로 변형되는 점[-> 예를 들어, 현실에서 원봉이네는 원봉을 낳은 후 죽는데, 지문에서는 원봉을 임신한 상태로 죽는 것처럼 그려진다.]과, 간단한 조명의 변화만으로 결이 다른 몽환을 뒤섞어 보여 주는 점 등이 ②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37~41] 인문 : 법칙 진술에 대한 툴리의 견해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분석 철학 - 툴리, 법칙 진술

보편 진술, 법칙 진술, 논리 실증주의자들, 툴리, 법칙적 필연, 보편자, 이론

* 지문 분석

문단1 : 법칙 진술 vs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 1) 보편 진술은 '모든 P는 Q이다.'와 같은 형식의 진술로, ...
⇒ 문장의 밀도가 상당히 높으니 조심하자. '보편 진술'은 '특정 P'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모든 P'에 대한 진술이다. 따라서 '모든 장미는 빨갛다.'와 같은 보편 진술은 단 한 송이의 장미라도 빨갛지 않으면 [→ Q가 아니면] 거짓이 될 게다.
- 2) 관성의 법칙을 기술하는,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 [→ 모든 P]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 Q이다].'라는 진술처럼 자연법칙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을 A.법칙 진술이라 한다.
[주목] '법칙 진술'이 '보편 진술'에 속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연법칙적으로 참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 한마디로 '법칙 진술'은 현실 세계를 이루는 자연법칙을 기술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인 셈이다.
- 3) 그런데 '철수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은 500원짜리이다.'와 같이 B.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도 있다.
⇒ 맞다. B는 '철수의 법칙'이라는 자연법칙이 존재해서 '철수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이 '500원짜리'인 것이 아니다. 이진 2)의 A의 경우와 달리 말 그대로 '우연적으로 참'이다.
[주목] 오해하지 말자.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은 '법칙 진술'이 아닐 뿐 여전히 참인 보편 진술에 해당한다. 다만 그것이 '자연법칙적으로 참'이 아닐 뿐이다.
- 4) A.법칙 진술은 B.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맥락 짚기] 이런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은 과연 2)의 '필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 법칙 진술]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문단2 :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설명

- 1)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진술의 표현에 주목하여 A.법칙 진술과 달리 B.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에는 '철수'와 같이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맥락 짚기] 문단1-4)에서 제기된 A와 B의 차이에 대한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설명이다. A에서는 '특정 개체'를 언급하지 않지만, B에서는 '특정 개체'를 언급한다는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 2) 하지만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참인 보편 진술이지만 A.법칙 진술이 아닌 진술의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 '논리 실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벌써 위기다. 이들에 따르면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참인 보편 진술'은 '법칙 진술'에 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된 참인 보편 진술'은 B에 속해야 한다.
[주목] 오해하지는 말자. 문단1-3)의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은 여전히 '모든 동전'에 대한 보편 진술이지, 특정 개체인 '철수'에 대한 보편 진술은 아니다.
- 3) '모든 P 각각은 Q라는 속성을 0.9999의 확률로 갖는다.'라는 진술이 확률적 법칙으로 주어져 있는 세계에서, ...
⇒ 0.9999의 확률이지, 1의 확률이 아니라는 점에 현혹되면 곤란하겠다. 여전히 형식적으로 '모든 P'에 대한 진술인 만큼 보편

진술에 해당할 게다.

- 4) P가 단 10개만 있고 그것들이 모두 Q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 이는 3)과 전혀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다. 10개의 P 각각은 0.9999의 확률로 Q라는 속성을 가질 뿐이다. 즉 이런 상황은 $(0.9999)^{10}$ 의 높은 확률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 5) 이때 '모든 P는 Q이다.'라는 진술은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은 참인 보편 진술이지만
⇒ 그렇겠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설명이 옳다면 해당 진술은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참인 보편 진술'인 만큼 A에 속해야 한다. 그런데
6) 법칙 진술로 볼 수는 없다. 충돌하는 두 법칙 [→ 법칙 진술 3), 5)]이 함께 성립할 수는 없는데, 확률적 법칙을 기술한 진술이 이 세계에서 법칙 진술이기 때문이다.
⇒ 그렇지 않단다! '모든 P는 Q이다.'라는 진술은 4)의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참인 보편 진술이다. 그럼에도 3)의 '모든 P 각각은 Q라는 속성을 0.9999의 확률로 갖는다.'라는 진술이 이미 '확률적 법칙'을 기술하는 '법칙 진술'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충돌하는 '모든 P는 Q이다.'는 법칙 진술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결국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설명은 A와 B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게 된다.
[주목] 하나의 세계에 단 하나의 '법칙 진술'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두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두 진술 모두 '법칙 진술'이 될 수 있다.

문단3 : 툴리의 설명

- 1) [논리 실증주의자들과 달리] 툴리는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에 주목한다.
[Rew] 문단2-1)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진술의 표현'에 주목했다면, '툴리'는 '각각의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에 주목했다. A는 '자연법칙적으로 참'이 되고 B는 '우연적으로 참'이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읽었다면 좋았겠다.
- 2) 그에 따르면 '모든 P는 Q이다.'라는 진술이 B.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라면, 현실 세계에서 P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Q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사실에 의해 참이 된다.
[Rew] 예를 들어 문단1-3)의 '철수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은 500원짜리이다.'라는 진술은, 현실 세계에서 '철수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500원짜리'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사실에 의해 참이 된다.
⇒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저 현실 세계의 개체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 3) 이와 달리 '모든 P는 Q이다.'라는 진술이 A.법칙 진술이라면, 개체가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주목] 중요하다. B와 마찬가지로 A 역시 현실 세계에서 P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Q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사실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참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단다. 이에 더해
4) 보편자 P와 보편자 Q 간에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참이 된다.
⇒ 이런 사실도 역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좀 더 읽어 봐야겠다.
[맥락 짚기] '툴리'가 1)에서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에 주목하여 A와 B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던 게다. 둘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의 차이>

A.법칙 진술	B.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현실 세계에서 P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Q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사실	
보편자 P와 보편자 Q 간에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	×

5) 여기서 **보편자**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임'과 '운동 상태를 유지함'과 같이

[Rew] 문단1-2)에서 예시로 등장했던 A.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에 대한 설명임을 의식해야겠다.

6) 현실 세계의 개체들이 그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으로서의 속성을 말한다.

⇒ 한마디로 '보편자'는 2), 3)에서 설명한 개체들에 관한 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추상적 속성인 게다.

⇒ 이제 알겠다.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법칙 진술이 참이기 위해서는, 3)에서 설명한 대로 현실 세계에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임'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함'이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사실로는 불충분하고

[주목] 더 나아가 4)에서 설명한 대로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임' [→ 보편자 P]과 '운동 상태를 유지함' [→ 보편자 Q] 간에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까지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문단4 : 툰리의 근거

1) 툰리는 개체들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법칙 진술을 규정해야 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 '개체들에 관한 사실'이 법칙 진술에서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하겠다. 관련 맥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다음 내용을 참조하자.

[참조] '툰리'가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법칙 진술을 규정한 것은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이 성립하면 당연히 '개체들에 관한 사실'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보편자'라는 추상적인 속성들 간에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면, 해당 속성을 가진 현실 세계의 개체들 간에도 유사한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문단3-4)의 표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의 차이>

A.법칙 진술	B.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보편자 P와 보편자 Q 간에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 P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Q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사실

2) 관성의 법칙에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무수한 인력 등으로 인해 현실 세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목] 정신 바짝 차리자.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법칙 진술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임'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에 대한 진술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는 그런 개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단다.

3) 논리적으로 보면 '모든 P는 Q이다.'라는 진술은 'Q가 아닌 P가 없다.'라는 진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진술은 P인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참이 된다.

⇒ 'Q가 아닌 P가 없다.'라는 진술은 'P가 없다.'라는 진술이 참이라면 논리적으로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애초에 장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얀 장미도, 빨간 장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게다.

4) 그런데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체들에 관한 사실만 존재하고

⇒ 3)에 따르면 이제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Q이다.'라는 진술은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 달리 말하면, 'Q이다.'에 무슨 말이 들어가든 참이 된다.

5) 보편자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면, ...

[Rew] 이에 더해 문단3-4)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6)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에 관한 법칙 진술의 후보들이 모두 법칙 진술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 한마디로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Q이다.'라는 형태의 보편 진술은 죄다 법칙 진술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느냐면

7) 즉 관성의 법칙을 기술하는 진술과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진술처럼 서로 충돌하는 두 진술이 모두 법칙 진술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 이렇게 상식적으로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두 법칙이 성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다. 문단2-6)에서도 강조했지만 충돌하는 두 법칙은 함께 성립할 수 없다.

[맥락 짚기] 만약에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임'과 같은 보편자 P가 존재한다면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Q이다.'라는 보편 진술은 더 이상 필연적으로 참이 되지 않는다. 어떤 진술이 참이 되는지는 Q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게다. 따라서 충돌하는 두 법칙이 모두 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을 게다. 결국 '툰리'는 이런 이유로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이 반드시 A와 B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다.

문단5 : 보편 진술의 수용

1) 나아가 툰리는 A.법칙 진술과 B.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중의 하나로 어떤 보편 진술을 받아들여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에 대해 해명한다.

[맥락 짚기] 이번에는 초점을 옮겨서 참인 '어떤 보편 진술'을 A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B로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툰리'의 설명이 이어지려나 보다.

2) 철수가 의도적으로 항상 바지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만을 넣는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보편 진술을 A.법칙 진술로 간주하지 않는다.

[Rew] 맞다. 문단1-3)에서도 확인했지만 해당 진술을 우리는 A가 아닌 B로 받아들인다.

3) 툰리에 따르면 어떤 보편 진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어떤 진술을 A.법칙 진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두 보편자 간에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

⇒ 그렇겠다. '툰리'의 설명[→ 문단4]대로라면 어떤 진술을 A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규정되는, 즉 '법칙적 필연' 관계에 의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4) 그것을 B.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철수가 의도적으로 500원짜리 동전만을 넣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반대로 어떤 진술을 B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 그대로 '개체들에 관한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5) 툰리는 우리가 후자의 이론[→ 4)]을 더 선호한다고 보았다. '법칙적 필연'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를 동원하지 않고도 그곳에 500원짜

리 동전만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 쉽게 말해서, ‘법칙적 필연’ 관계를 동원하지 않고도 해당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해당 보편 진술을 B로 받아들이기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 ① ‘법칙적 필연’ 관계를 동원하지 않아도 설명 가능 → B로 수용
- ② ‘법칙적 필연’ 관계를 동원해야만 설명 가능 → A로 수용

